

「목란언니」 보도자료

루이스 아트 센터 연극 분과와 이스트 웨스트 극단의
「목란언니」

김은성 작, 정다영 드라마투르그 역의 현대극 「목란언니」 영어 초연

공연 소개: 탈북자의 시선으로 한반도의 분단을 그린 김은성 작, 정다영 역의 현대극 「목란언니」(Sister Mok-rahn)가 이스트 웨스트 극단(East West Theatre)의 공동 제작과 프린스턴 대학의 비교문학 및 한국어과의 후원 하에서 초연을 선보인다. 2월 15, 20, 21일에는 공연 후 프린스턴의 정체성에 대한 학내 담론 형성을 위한 기금(Princeton's Campus Conversations on Identities (CCI) Fund)이 공동 후원하는 관객과의 대화가 예정되어 있으며, 남북의 현대사를 소개하고, 번역의 한계를 드러내 보이며, 탈북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전시회 또한 마련되어 있다. 두번째 주의 공연은 프린스턴 북한인권연대(Princeton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가 주최하는 북한인권 회의(Princeton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Conference)와 연계되어 진행된다.

제작진: 연극 감독 김선재, 의상 디자이너 장한지, 음향 디자이너 팬 장(Fan Zhang)이 객원으로 제작에 참여했으며, 프린스턴 대학 4학년 김전영이 무대·조명 디자인과 드라마투르그, 캐롤 리(Carol Lee)가 주연 배우를, 한나 세멜학(Hannah Semmelhack)이 무대 감독을 맡았다. 프린스턴 대학의 연극학과와 이스트 웨스트 극단의 협업으로 선보인다.

공연 일자: 2월 14-15, 20-22 오후 8시

공연 장소: 프린스턴 대학 내 루이스 아트 센터의 월러스 극장(Wallace Theatre)

예매 정보: 학내 티켓팅 서비스를 통해 예매 가능. 공연 일자 이전 구매 시 \$12, 학생 \$10, 경로자 \$12, 당일 구매는 \$17.

관련 행사

행사 소개: 「목란언니」 초연과 함께 남북한의 현대사를 소개하고, 번역의 한계를 드러내 보이며 탈북자의 목소리에 주목하는 전시, 「말을 채색하다: 탈북자들의 이야기로 그린 조선인민공화국의 현실」(Painting of the Tongue: Picturing Reality in North Korea through the Stories of Defectors)이 예정되어 있다. 이 전시는 다각적인 매체 사용을 통해 관람객에게 다층적인 감각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며, 프린스턴 학생의 사진 또한 함께 전시된다. 프린스턴 대학의 2학년 캐머론 리(Cameron Lee)와 아누시카 마리왈라(Anoushka Mariwala)가 큐레이팅을 맡았으며, 4학년 김전영이 총괄했다.

전시 일자: 2월 10-22일,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 반까지.

전시 장소: 프린스턴 대학 내 루이스 아트 센터의 코랩(CoLab)

예매 정보: 대학 관계자 및 대중에게 무료.

(프린스턴, 뉴저지) 프린스턴 대학의 루이스 아트 센터 연극 분과에서 김은성 작, 정다영 드라마투르그 역의 현대극 「목란언니」의 영어 초연을 선보인다. 「목란언니」

는 탈북자의 시선으로 한반도의 분단을 그린 연극으로, 김선재 감독·장한지 의상 디자이너·팬 장 음향 디자이너가 객원으로 제작에 참여했다. 또한 「목란언니」는 무대·조명 디자이너 및 드라마투르그 김전영, 주연을 맡은 캐롤 리, 무대 감독 한나 세멜학의 졸업 공연이기도 하며, 학생 연극 단체 이스트 웨스트 극단이 공동 제작을 맡았다. 2월 14-15, 20-22일 오후 8시에 프린스턴 대학 내 루이스 아트 센터의 윌러스 극장에서 공연 예정이다. 공연과 연계된 전시 및 관객과의 대화가 계획되어 있으며, 매년 프린스턴에서 개최되는 북한인권 회의도 공연과 함께 진행된다.

「목란언니」는 평양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으나 탈북을 한 아코디언 연주가 조목란의 시련과 인간 관계를 그린 작품이다. 조목란은 부모님과 재회를 위해 재입북을 결심하는데, 여비를 위해 실연의 아픔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무직의 역사학자 허태산의 간병인으로 취업한다. 조목란은 허태산의 가족인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립살롱을 운영하는 허태산의 어머니 조대자, 교수 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남동생 허태강, 시나리오 작가를 꿈꾸는 막내 여동생 허태양과도 부딪히게 된다. 조목란은 남한의 문화와 자본주의를 헤쳐나가며 뜻밖의 사랑을 만나고, 욕망과 이념의 충돌을 겪는다.

「목란언니」는 2012년 3월 9일 대한민국 서울의 두산아트센터의 Space111에서 초연을 선보인 이래로 여러 차례 공연되었다. 2017년 5월에는 정다영 드라마투르그의 영역본이 PEN World Voices 국제 연극제의 일환으로 뉴욕의 Nuyorican Poets Café에서 낭독 공연을 가졌다.

프린스턴 대학 4학년 김전영, 캐롤 리와 한나 세멜학은 「목란언니」를 이스트 웨스트 극단과의 공동 제작 하에서 프린스턴 연극학과 졸업 공연으로 제안했다.

김전영은 비교문학을 전공하고, 연극·뮤지컬·동아시아 연구·컴퓨터 공학을 부전공하는 대한민국 대전 출신의 학생이다. 김전영은 프린스턴 입학 전부터 연극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학생 수가 몇 되지 않는 중고등학교를 다닌 탓에 연극 제작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연극 제작을 경험하고 싶다는 소망은 프린스턴에서 이루어졌다. 김전영은 Theatre Intime과 Princeton University Players와 같은 학생 연극 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했으며, 경험이 많은 여러 학생 연극 디자이너를 보며 계속해서 연극 제작을 하기로 결심했다. 연극학과장이자 현직 조명 디자이너인 제인 콕스(Jane Cox) 교수의 조명 디자인 수업을 듣기도 했다. 김전영은 루이스 아트 센터에서 공연된 연극 중 Intimate Apparel, Fun Home, Next to Normal에서는 음향 디자인을, The Odyssey, Turning Inward, Water Play에서는 조명 디자인을 맡았고, 브랜든 제이콥-젠킨스(Brandon Jacob-Jenkins)의 Gurls 초연에서는 보조 조명 디자이너, Trailing Rhiannon에서는 보조 무대 감독과 음향 엔지니어, Mad Dreams, We Were Everywhere에서는 음향 스태프로 활동하기도 했다. 「목란언니」는 김전영이 무대 디자이너와 드라마투르그를 맡은 첫 공연이다.

캐롤 리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연극을 부전공하는 로스앤젤레스 출신의 학생이다. 캐롤 리는 프린스턴 입학 이전에는 연극 경험이 없었으나, 무대 위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경험을 대변하는 데 사명감을 갖고 이스트 웨스트 극단에서 활동하던 한 친구의 제안으로 프린스턴 졸업생의 연극 낭독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공연을 본 Theatre Intime 극단원이 학생 극작가 연극제(Student Playwrights Festival) 오디션을 권해 연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캐롤 리의 첫 작품은 김전영의 첫 조명 디자인 작품이었고, 캐롤 리는 연극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연극을 만들어 나갈 동료들을 만났다. 이후 캐롤 리는 Theatre Intime 극단에서 연기를 하며 극단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했고, 루이스 아트 센터, Princeton University Players, 이스트 웨스트 극단, Princeton Summer Theater의 여러 작품에서 배우로 활동해 왔고, 인디언 영화에 출연할 뿐만 아니라 꾸준히 다양한 학내 공연에 참여하고 있다.

김전영은 한국문학 수업에서 한국인의 경험이 미국 문화 속에서 어떻게 대변되어 왔는지 조사를 하던 중에 「목란언니」의 영역본을 발견했으며, 영어로 번역된 한국 희곡이 상당히 적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 김전영은 「목란언니」에 등장하는 매력적인 여주인공과 다각적인 인물들, 그리고 「목란언니」가 한반도 고유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사실에 매료되었으며, 비교문학과 및 연극학과의 졸업 프로젝트로 제안하기에도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목란언니」 제작을 결심했다.

김전영과 캐롤 리는 로이드 서(Lloyd Suh) 극작가의 Charles Francis Chan Jr.'s Exotic Oriental Murder Mystery 를 1 학년 때 함께 관람하며, 생동감 넘치며 고정관점을 부수는 아시아계 사람에 대한 묘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에 2018년 4월 김전영은 「목란언니」를 졸업 작품으로 올리기를 결심하자마자 캐롤 리가 주연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전영과 캐롤 리는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악수를 함께 시청하기도 한 바, 남과 북의 문제를 다루는 「목란언니」를 올린다는 사실에도 의미를 두고 있다. 작년 8월 한 달 간, 김전영은 서울에서 다른 프린스턴 학생 몇 과 함께 「목란언니」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고전학을 전공하고 연극과 뮤지컬을 부전공하는 한나 세멜학은 「목란언니」에 그 이후에 합류했다. 세멜학은 The Odyssey, Intimate Apparel, Trailing Rhiannon 등 각종 루이스 아트 센터의 무대 감독으로 활동했으며 초보 무대 감독 학생들의 멘토로 활동하기도 했다. 세멜학은 Letters and Dreams의 조명 디자이너였고, 학생 극단 Theatre Intime의 프로덕션 매니저이기도 했으며, Princeton Shakespeare Company, Princeton University Players, Theatre Intime, BodyHype과 같은 학생 연극 단체 공연의 무대 감독이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예비 전문가 극단인 Princeton Summer Theater의 전문이사이기도 했다.

작품에 참여한 4학년 학생들과 콕스 교수는 「목란언니」에 가능한 한 많은 여성 아시아계 예술가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2017년 Nuyorican

Poets Café에서 「목란언니」를 감독한 김선재, 의상 디자이너 장한지, 음향 디자이너 팬 장을 초빙했다. 배우진과 프로덕션 팀은 정다영의 영역본과 한국어 원문이 함께 실린 대본을 사용했으며, 정다영은 리허설 과정 중에도 번역을 계속해서 손보았다.

2월 10일에서 22일까지 루이스 아트 센터 내 코랩에서 열리는 연계 전시, 「말을 채색하다: 탈북자들의 이야기로 그린 조선인민공화국의 현실」 또한 「목란언니」의 제작 과정만큼이나 번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전시는 남북한의 현대사를 소개하며, 번역의 한계를 드러내 보임과 동시에 탈북자의 목소리에 주목한다. 이 전시는 다각적인 매체 사용을 통해 관람객에게 다층적인 감각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며, 프린스턴 학생의 사진 또한 함께 전시된다. 프린스턴 대학의 2학년 캐머론 리(Cameron Lee)와 아누시카 마리왈라(Anoushka Mariwala)가 큐레이팅을 맡았으며, 4학년 김전영이 총괄했다.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 반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대학 관계자 외 대중에게까지 무료로 개방된다.

「목란언니」 제작진은 공연의 주제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연 중 세차례 이스트 웨스트 극단과 함께 관객과의 대화 진행할 예정이다. 2월 15일에는 감독 김선재와 번역가 정다영이, 2월 20일에는 「목란언니」 감독 김선재 및 김전영과 캐틀리가, 2월 21일에는 익일 북한인권 회의 발표자들과 중국 거주 탈북자와 청소년 탈북자를 지원하는 기관 Crossing Borders의 설립자 댄 정(Dan Chung)과 탈북자 켄 엄(Ken Eom)이 참여한다. 2월 15일에는 정다영이 프린스턴 학생을 대상으로 「목란언니」를 번역하는 과정 중 겪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번역을 통한 무대 위의 타자 묘사」(Portraying the Other on Stage through Translation)라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러한 관객과의 대화와 워크숍은 프린스턴의 정체성에 대한 학내 담론 형성을 위한 기금(Campus Conversations on Identities Fund)의 후원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매년 프린스턴에서 개최되는 북한인권 회의에는 미 전역의 대학에서 참가자들이 모인다. 올해 학회는 Façade: Unmasking the North Korean Story라는 이름으로 개최된다. 언급한 발표자 외에는 미 전 국무장관 매들라인 K. 올브라이트(Madeleine K. Albright)가 공동 이사로 있는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Albright Stonebridge Group)의 수석 담당자 에반스 리비어(Evans Revere)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전무 이사였던 데이빗 호크(David Hawk)도 참여할 예정이다.

그외 「목란언니」의 학생 제작진에는 4학년 카를 선(Carl Sun), 보조 무술 안무 지도를 맡고 있는 3학년 김민재, 제이슨 쿵(Jason Kong)과 한나 왕(Hannah Wang)이 있으며, 2학년 메건 판(Megan Pan), 조나단 솜(Jonathan Som)과 음악 감독 그레이스 자오(Grace Zhao)와 1학년 류키 나카야마(Ryuki Nakayama)가 있다. 전문 연기자 로시오 멘데즈(Rocio Mendez)가 무술 안무·인터머시 지도 맡았다. 2학년 케이린 주(Kaylin Xu)는 소품 매니저, 1학년 라케쉬 포트루리(Rakesh Potluri)와 안젤리카 킨(Angelica Qin)은 각각 보조 조명 감독과 보조 무대 감독을 맡았다.

여러 교수와 객원 예술가가 또한 추가적인 지도를 제공했다. 드라마투르기 지도는 마이클 캐든(Michael Cadden), 문학 지도는 브라이언 헤레라(Brian Herrera), 조명 디자인 지도는 테스 제임스(Tess James), 연기 지도는 피터 김(Peter Kim), 무대 디자인 지도는 로렌스 모텐(Lawrence Moten), 프로젝트 컨설턴트는 알렉스 볼크하우젠(Alex Volckhausen)이 맡았다.

월러스 극장은 베리어 프리이며 자세한 사항은

<https://arts.princeton.edu/about/contact/accessibili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연 관람을 위한 청각보조장치는 필요시 제공되며, 그 외 장치가 필요한 관람객은 관람 예정인 공연 일자 최소 2주 전에 609-258-5262 또는 LewisCtr-Comm@princeton.edu로 문의를 바란다.

티켓은 공연 일자 이전 구매 시 \$12, 학생 \$10 (4학년 \$12)이며, 당일 구매는 \$17이다. 학내 티켓팅 웹사이트인 arts.tickets.edu를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사전 예매를 권장한다.

「목란언니」와 프린스턴 연극학과, 그리고 대부분 무료로 루이스 아트 센터에서 상연되는 100 개 이상의 공연, 전시회, 낭독회, 상영회, 콘서트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arts.princeton.edu 에서 얻을 수 있다.

번역: 김현서

Translation by Hyeonseo Kim